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기업들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력저감장치 제조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제조업체들은 대기전력차단콘센트·절전타이머 등 전력저감장치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각 부처들의 잇따른 에너지절감 정책 발표로 전력저감장치 제조업체를 찾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절전 노력을 강화하려는 기업들도 대거 등장했다. 장마기간도 끝나고 찜통더위의 시기를 앞둔 지금, 기업들의 절전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봤다.

대기업, 정부정책 적극 부응

우선 전력다소비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력경보 주의단계에 사업본부별로 순환정전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15분간 냉방기기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도 실행 중이다.

LS전선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단계별로 전력 절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각 전력 부족상황마다 추가 소등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중단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몇 년 째 에너지 패트롤 실시, 냉방부하 온도 고정, 생산설비 전력절감 활동을 수행해 왔다. 에너지 패트롤은 1일 1회 이상 담당자(설비관리 엔지니어)가 사업장을 순회 하면서



불필요 전등을 끄거나 가동하지 않는 설비의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절전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대한전선과 가온전선도 정부의 절전 독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점심시간 중 소등 및 퇴근 시 사무기기 전원 차단을 생활화하기 위해 직원 독려 운동을 하고, 정부의 냉방·온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우리도 힘 보탠다'

중소기업들도 절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배전반업계의 대표 기업인 케이디파워가 대표적이다.

건물 옥상위에는 태양광 일반구조물인 한국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주차장에는 태양의 위치를 추적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로봇형 태양광 트래커를 설치, 정원에는 태양광 가로등과 로봇형 태양광 트래커를 각각 설치해 공장단지 곳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화장실과 복도는 인체감지 자동센서를 설치해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도록 하고 낮 시간에는 창가 쪽만 절전형 친환경 LED 제품형광등을 따로 배선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이화전기공업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절전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소모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부하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500kW 이상의 부하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3시간 전 공장운영부에 통보하도록 공지했다. 생산라인과 연구소, 사무동의 전기사용계획을 정리해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특정 시간에 전기가 과다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명업계도 국가적인 절전대책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다만 휴가기간 변경, 조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절전활동보다는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기업이 나서야 절전운동 효과 UP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나서야 절전운동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더불어 국민들이 기업들의 노력을 인식하고 응원한다면 '여름철 전력수요 불균형'은 옛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진주 기자
한국전기신문사